

# 선군사상에 의한 혁명력량편성의 근본문제해명

최 금 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김정일선집》 제21권 증보판 380페이지)

혁명력량을 어떻게 꾸리며 그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한 혁명은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혁명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게 되고 종당에는 패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온갖 형태의 예측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며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전진해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투쟁이다.

이러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어느 계급과 계층, 어느 사회적집단을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어느 계급, 계층과 동맹하고 통일전선을 이룩하겠는가 하는것 등 혁명력량편성문제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혁명력량의 편성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혁명을 막론하고 언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력사는 전진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소련과 동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반제자주력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대두한 미제국주의는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여나섰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자주외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군사적침략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으로 달려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으며 우리는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집중공세를 맞받아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전진시켜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력량편성문제를 낳은 기존공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해명할것을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선군사상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편성문제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혁명력량편성에서 근본문제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주력군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혁명력량의 위력과 역할, 나아가서 혁명의 승패와 그 전도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선군사상은 선군시대 혁명의 핵심력량,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혁명의 주력군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혁명력량을 이루는 각이한 사회적집단들 가운데서 어느 계급, 어느 계층, 어느 사회적집단을 핵심력량, 본보기로 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혁명력량에 관한 문제가 혁명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혁명의 담당자, 수행자에 관한 문제라면 혁명의 주력군문제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주도적역할을 하는 집단, 혁명의 핵심부대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력량편성의 근본문제인 혁명의 주력군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력군을 규정하는 요인을 정확히 밝히는데 기초하여 주력군을 옳게 내세우고 주력군이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결정적요인, 그 담보가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주력군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사상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주력군을 규정하는 요인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혁명의 핵심력량, 주력군을 규정하는 요인을 옳바로 해명해야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주력군을 가장 정확히 내세울수 있을뿐 아니라 혁명력량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 그리고 그 발전전략을 옳게 확립하여 혁명력량의 확고한 우세를

보장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해나갈수 있다.

지난 시기 선행고전가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사회계급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선행고전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당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리론이었다. 당시 자본가계급과 대립되어있는 계급들 가운데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의 주되는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무권리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계급은 로동계급이었다.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를 비롯한 중산층은 자본주의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파산물락되고있었지만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적대공업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장성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었다.

이러한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선행고전가들은 로동계급이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주력군으로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지난 시기 선행고전가들이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사회계급적처지를 기본으로 하여 주력군을 규정하는 요인을 밝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선군사상은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 핵심력량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선군사상은 혁명의 주력군이 혁명의 여러 전선들가운데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전선을 맡고있으며 혁명운동발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 혁명집단이 될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헌신성,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 완강한 공격정신에

서 다른 집단들의 본보기로 되고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집단주의정신이 높으며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적기백에 넘쳐 사업하며 생활하는 혁명집단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주력군은 혁명운동을 떠밀고나가는 혁명력량의 핵심력량, 본보기이므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의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이 혁명력량을 이루는 다른 집단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견지에서 찾아야 한다.

혁명이 전진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 혁명임무와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며 혁명력량을 이루는 사회적집단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필연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적집단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의 시대에 혁명의 반제군사전선을 맡아 지켜서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위력한 혁명집단은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목숨으로 수호하는 혁명적무장대오이며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이다.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있어서 인민군대보다 더 강한 집단은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가장 조직화된 전투대오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다.

인민군대는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수호정신이 강하며 제

국주의와 계급적원썬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은 혁명에서 인민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으로 보나 응당한것이다.

선군사상은 다음으로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 결정적요인이 당과 수령의 령도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문제는 주력군이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문제 특히 주력군문제해명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규정하는 요인이 옳게 해명되었다 하더라도 주력군을 키우기 위한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면 주력군이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지난 시기 선행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주력군을 키우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선군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 결정적요인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혁명에 참가하는 군대나 사회주의나라 군대라고 하여 다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이나 군대나 할것없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의식화, 조직화되어야만 혁명적인 계급,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될수 있고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의 핵심부대도 주력군도 키울수 없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사태가 잘 말하여준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의 반동적구호밑에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포기하였다.

그 결과 군대가 당과 정권, 사회주의를 보위하는 성새와 방패의 역할을 놀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당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혁명정권을 반대하는 우익반동들에게 룡락당하는 한심한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은 아무리 사회주의나라 군대라고 하여도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은 고사하고 진정한 혁명군대로도 될수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선군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가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무적필승의 강위력한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참다운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

적인 령도밑에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이 짝 들어찬 충정의 혁명대오로,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대오로 되었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군체계가 확고히 서고 군대안에서 관병일치, 군정배합이 확고히 보장되는 강력한 전투대오로, 혁명의 핵심부대로 강화발전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기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고있다.

참으로 선군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력군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혁명력량편성문제에서 새로운 경지가 빛나게 개척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이 땅우에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는 강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의 위력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할것이다.